

18,9세기 韓日兩國의 明清小品文 受容에 대한 比較研究*

金 聲 振**

차 례

- | | |
|----------------------------|-------------------------------------|
| I. 序論 | III. 韓日兩國 文士들의 明清小品文 受容과
小品文의 확산 |
| II. 18,9세기 文人들의 藏書癖과 明清小品文 | IV. 맺음말 |

I. 序論

본 연구는 明清小品文이 18,9세기 한일 양국의 문단에 어떤 식으로 수용되었는가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 明清小品文이라고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에서 公安派와 竟陵派가 풍미하던 16세기와 그 영향력이 여전한 17세기 초반의 明末清初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明清小品文이 중국에서 성행한 것은 16,7세기인데 굳이 18,9세기에 초점을 맞추어 한일 양국 문단의 明清小品文 수용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한일 양국에서 文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02-A00063)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風의 변화가 표면화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18,9세기 이전에도 한일 양국 공히 어느 정도는 明清小品文이 수용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허균이 1614년과 1615년에 중국에 가서 다수의 晚明小品書를 포함한 수천 권의 서적을 사오고 일본의 元政(1623-1668)이 明末의 亡命詩人 陳元贊(1587-1671)과 함께 일본에서 처음으로 性靈體詩風을 시도한 시집이라는 『元元唱和集』을 펴낸 것¹⁾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에서 公安派와 竟陵派가 풍미하게 된 것은 擬古文派의 지나친 모방과 표절에 대한 반대의 성격이 강한데, 이는 한국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다시 말해, 韓中日 3국 공히 明清小品文의 대두와 성행은 일정부분 의고문파의 성쇠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那波師曾이 통신사의 甲申使行(1764) 때의 筆談記錄인 『問槎餘響』에 쓴 서문의 “오호라, 세상이 바야흐로 嘉隆의 僞體를 귀히 여기니 무덤에 구걸하고 썩은 쥐에게 올려대는 것과 같고 썩어 문드러진 것이 눈에 넘쳐난다. 내가 특별히 여러 학사들을 좋아 하는 것은 그들의 시문이 清新하기 때문이다.”²⁾라는 지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那波師曾이 말한 ‘嘉隆의 僞體’란 王世貞과 李攀龍 등 이른바 前後七子의 擬古文을 추종했던 物雙栢의 古文辭學派를 가리킨 것으로, 那波師曾은 南玉 등의 조선측 문사들의 시문이 의고문의 병폐에 물들지 않아 清新하기 때문에 그들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那波師曾 등의 古文辭學派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790년의 ‘異學의 禁書’으로 구체화되어 일본 문단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해에 조선에서 文體反正策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文體反正과 ‘異學의 禁書’은 程朱學的 질서로의 회귀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反正과 禁書의 대상이 된 僞體와 異學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문체반정의 반정 대상이 稗史·小品이었다면 ‘異學의 禁書’이 금하고자 했던 異學은 주로 古文辭學派와 西學이었기 때문이다. 古文辭學派와 西學 역시 明清小品과 무관할 수 없지만, 明清小品 내지 明末清初文集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1) 佐野正巳, 『元元唱和集解題』, 『詩集日本漢詩』第13卷, 汲古書院, 日本東京, 1988.

2) 那波師曾, 『問槎餘響序』, 『問槎餘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嗚呼 世方貴嘉隆之僞體 乞播嚇腐 爛熟溢目 余所以特以喜諸學士者 以其新也”

문체반정과는 달리 ‘異學의 禁書’에서는 明清小品이 직접적인 금령의 대상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한일 양국의 명청소품문 수용 양상을 비교 연구함에 있어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한일 양국 문인들의 독서성향을 파악하는 것 역시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독서기록이야말로 문학의 수용 양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1차적 자료이기 때문이다. 明清小品文과 관련된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독서성향에 대해서는 김영진이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³⁾ 이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俞晩柱(1755-1788)의 『欽英』인데, 여기에는 독서연도까지 기록되어 있다. 『欽英』과 비슷한 성격의 문헌이 尾藤二洲(1745-1813)의 『靜寄餘筆』와 『冬讀書餘』이다. 尾藤二洲는 那波師曾(1727-1789)의 제자로 ‘異學의 禁書’ 직후 幕府에 徵召된 儒官이기도 하다. 하지만 『欽英』과 『靜寄餘筆』 『冬讀書餘』 등은 특정인의 독서기록이므로, 이를 당시 문단의 일반적인 독서성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당시의 출판 상황 내지 문단 풍향을 파악하게 하는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일본의 경우, 『江戸時代書林出版書籍目錄集成』에 明清小品書를 포함하여 江戸幕府 당시 상업출판된 책들의 서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실려 있어 부분적이거나 당시 일본 문단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자료를 통해 파악되듯, ‘小品’이라는 題名을 단 서적의 출판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李贄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開卷一笑』를 축약해서 번역하고 설명을 붙인 『日本 開卷一笑』가 출판되었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 문인의 독서성향과 출판 상황을 기초로 해서 당시 동아시아의 주요한 문화적 사건이었던 文體反正과 ‘異學의 禁書’ 등을 통해 18,9세기 한일 양국의 明清小品文 수용의 양상을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한국쪽의 자료는 주로 민족문화추진회의 『한국문집총간』을, 일본쪽의 자료는 汲古書院의 『詩集 日本漢詩』를 이용했다.

3) 김영진, 『조선후기의 明清小品 수용 양상』, 『朝鮮後期の 明清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II. 18,9세기 文人들의 藏書癖과 明清小品文

문체반정의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한 南公轍은 자신의 집에 있는 건물들을 古董閣·書畫齋·古董書畫閣 등으로 불렀을 뿐 아니라, 서화에 대한 題跋을 묶어 따로 2권 분량의 ‘書畫跋尾’를 펴내기도 하였다. 고동서화는 거의가 중국의 것이었는데, 박남수의 경우처럼 사람에게 따라서는 수천점의 고동서화를 소장하기도 하였다. 남공철은 이처럼 서화에 대해 남다른 습벽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蘇東坡와 董其昌의 서첩을 애호했다. 서첩은 서예로서의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문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遊記나 題跋과 함께 소품의 주된 양식 중의 하나인 尺牘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蘇東坡의 尺牘을 위주로 한 『蘇黃尺牘』은 晚明小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⁴⁾

남공철은 서화에 대한 습벽 외에도 장서의 癖도 있었다. 다음의 글은 남공철의 藏書癖을 잘 말해준다.

사람들은 외물에 대해 모두 癖이 있다. 癖이라는 것은 病이다. 그런데도 군자들 중에 중신토록 이를 사모하는 자가 있는 것은 거기에 지극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저 古玉, 古銅, 鼎彝, 筆山, 硯石 등은 세상이 모두 소장해서 玩好로 삼는다. 그러나 淸賞하는 사람은 그것을 접하게 되면 한번 어루만지는 것으로 다하는데, 珠璣와 銀貨는 이익이 있으니 천 리라도 발이 부르르도록 찾아간다. 그것을 구할 때면 산을 헤메고 바다에 들어가고 무덤을 파고 관을 쪼개며 스스로 몸을 가볍게 여기고 삶과 죽음을 넘나든다. 그렇지만 이미 충족되고 나면 禍가 있다. 취하고서도 화가 없고 지니고도 다함이 없는 것은 오직 책이로다.⁵⁾

남공철은 골동품 수집벽이 병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평생토록 좋아하는 것은 거기에 남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골동품에 대해 나름대로

4) 줄고, 『朝鮮後期 文人들의 生活相과 小品體 散文』,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1998.

5) 南公轍, 『金陵集』 卷11 面6 「贈元孺良在明序」, “人之於物 皆有癖 癖者 病也 然君子有終身而慕之者 以其有至樂也 今夫古玉古銅鼎彝筆山硯石 世皆蓄爲玩好 然淸賞者遇之 適一摩挲而盡矣 珠璣銀貨 利之所在 爾足千里 方其求之也 探山入海 破塚剖棺 自以輕身 與死生 而及其既足而有禍 取之而無禍 藏之而無盡者 其惟書乎”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남공철이 말하고자 한 것은 장서의 무진장한 가치이다. 실제로 남공철의 이 글은 만권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던 원유명의 장서벽에 대해 말한 것이기도 하다.

영조 47년에 『明紀輯略』 가운데 태조와 인조를 모독한 문구가 들어 있어 중국에 그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그 책을 천하에서 수집하여 소각하고 서책을 잡아죽인 일이 있었다.⁶⁾ 이때 『明紀輯略』을 편찬한 朱璘의 문집인 『靑菴集』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거벗긴 채 따가운 햇볕 아래 나란히 엮으려 거의 죽게 된 역관과 서패가 1백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⁷⁾ 백 명 정도라고 했지만 이는 『청암집』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된 경우이다. 따라서 실제로 서적을 취급하는 서패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고, 그 많은 서패가 책을 팔아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 정도로 서적의 수요가 많았으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강명관은 18세기 말엽에 한양에 서점이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⁸⁾, 늦어도 18세기 중엽 정도에는 서점이 출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이 조선후기의 장서가들은 燕山時 스스로 서적을 구입해 오기도 하고, 서패나 서점을 통해 책을 구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문장은 조선후기 장서가들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좁고 작다고 하지만 沈斗室의 續堂은 거의 4만 원이 넘고 遊荷 趙秉龜와 石醉 尹致定 두 분의 집도 또한 3,4만 권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밖에 鎭川縣 草坪里의 華谷 李慶億의 萬卷樓와 楓石 徐有渠의 斗陵里 8천 권은 또 그 아래가 된다.⁹⁾

심상규와 조병구, 윤치정 등은 3,4만권, 그리고 이경억은 만권, 서유구는 8천권의 소장가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강명관은 이들 외에도 최석정·원인

6) 劉在建, 『里鄉見聞錄』 卷10 <曹生> 참조.

7) 『明紀輯略』 사건에 대해서는 좋고, 「四庫全書가 文體反正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부산한문학회연구』9집(부산한문학회, 1995)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

8) 강명관,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민족문화사연구』9, 민족문화사연구소, 1996.

9) 洪翰周, 「藏書家」, 『智水拈筆』(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84) 面6, “雖以我國之編小沈斗室公之續堂 殆過四萬 趙遊荷秉龜 尹石醉致定李公之家 亦不下三四萬卷 其他鎭川縣草坪里 華谷李相慶億之萬卷樓 徐楓石有渠斗陵里之八千卷 又其下也”

손·이만수·김조순 등도 대형장서가로 보았다. 김영진은 姜浚欽(1768-1833)의 『讀書節記』에 실린 자료를 통해, 이들 외에 安山の 柳命天·柳命賢 형제와 진천의 이하곤, 서울의 李廷龜 후손가 등이 18세기의 4대 만권당임을 밝히면서 李晝九·李晩秀·鄭弘淳 등의 가문 역시 만권루에 육박하는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음을 말하였다. 이밖에 李用休·朴明源·俞漢雋 등도 꽤 알려진 장서가였다고 한다.

이 글을 쓴 洪翰周(1798-1866)가 19세기의 문인이므로 거론된 사람들이 대개 18,9세기의 경화세족이지만, 허균의 예에서 보듯 그 이전에도 일부 경화세족을 중심으로 장서에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허균이 4천여 권의 책을 사온 것은 1614년의 일인데, 이에 앞서 俞絳(1510-1570)이 중국에 갔을 때 한 배 가득 책을 구입해와서 鄉庄과 京第, 海陽山房 등의 세 곳에 나누어 비치해 두었다고 한다. 그 후손인 俞晩柱(1755-1788)가 쓴 『欽英』에 따르면, 海陽山房에 두었던 책의 소장서 목록에 기재된 것이 2,874권이었다고 한다. 그러니 유강이 한 배 가득 사온 책은 대략 6,7천 권은 되었을 것이다.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晝書 소장가이자 장서가였던 李夏坤(1677-1724)의 예는 이와 약간 다른 경우이다. 그 증조부인 李時發(1569-1626)이 임진왜란 때 원병으로 온 參將 駱尙志와 의형제를 맺었는데, 駱尙志가 중국책 수천 권을 실어다가 이시발에게 선물함으로써 李夏坤의 집안에 장서가 많아지게 되었다고 한다.¹⁰⁾ 이에 앞서 정철의 손자로 奉化의 태백산 아래 道深리에 우거하던 鄭瀆(1600-1668)의 장서가 만권에 달했다고 하고¹¹⁾ 선조의 손자로 『臨池說林』과 『大東金石錄』을 지은 李儼(1637-1693) 역시 장서가 만권에 이르렀다고 한다.¹²⁾

유강이나 허균처럼 개인적으로 수천 권의 책을 구매해오고 駱尙志처럼 수천 권의 책을 이국땅의 의형제에게 선물할 정도로 燕京을 중심으로 서적의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서지학자들은 嘉慶年間(1522-1566)은 출판의 신시대라고 할 만큼, 그때까지 오랫동안 출판되었던 고전작가들의 책들이 속속 출판되었고 출판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내용도 통속화되었다고 보

10) 김영진의 앞의 논문.

11) 鄭瀆, 『抱翁集』 卷8 面18 『行狀』

12) 申翼相, 『醒齋遺稿』 6冊 「郎善君諡狀」

고 있다.¹³⁾ 중국에서 출판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일시에 수천 권의 책을 구매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17세기 이후로 점차 장서 취미가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대되어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수염필』 ‘藏書家’조의 앞서 인용한 구절 바로 다음에 이러한 재미있는 언급이 있다.

대개 京師의 故家에서 책을 소장한 것이 천 권이나 만권에 이르는 것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그러한즉, 일본이나 유구처럼 文明이 마야흐로 성해지는 곳이 어떠한지 가히 헤아려 알 수 있다.¹⁴⁾

홍한주는 당시 우리나라의 경화세족 가운데 만권서의 소장한 집안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뿐 아니라, 일본이나 유구 역시 그럴 것으로 보았는데, 이 책의 『古今圖書集成』조에 조선 문인들이 일본의 중국서적 구입열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된 일을 기술하고 있다.

앞서 홍한주가 8천 권의 소장가로 지목한 徐有槩의 조부가 徐浩修인데, 그는 정조 원년(1776)에 謝恩副使로 燕行을 했을 때 왕명에 따라 특별히 구매하려던 『四庫全書』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하여 대신 은자 2,150냥을 주고 5천 20 권에 달하는 『古今圖書集成』을 구매해서 먼저 실어 보냈다. 『지수염필』의 『古今圖書集成』조에 실려 있는 이야기는 서호수 일행이 책을 구매했을 때 겪은 일을 적은 것이다.

병신년에 이 책을 구입해 올 때 연경의 시장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이 간행된 것이 거의 50년은 지났을 터인데 당신네 나라는 右文을 칭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사려고 하는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長崎島에서 1부, 江戶에서 2부를 이미 구해 3권이 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답을 할 수 없었다.¹⁵⁾

13)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岩波書店, 1999) p.557 「明刊本」 참고.

14) 洪翰周의 앞의 글, “蓋京師故家 有書之至千萬卷者 指不勝擣 我國既然 則日本琉球之文明方盛 推可知也”

15) 홍한주의 같은 책 pp.28-31 「古今圖書集成」, “丙申購來時 燕市人笑謂我人曰 此書刊行 殆過五十年 而貴國呼稱右文 今始求買耶 日本則 長崎島一部 江戶二部 已

우리나라에서 『四庫全書』를 구입하는 대신 사는 『古今圖書集成』을 일본에서는 3절이나 사서 그 책들이 이미 보내졌다는 말을 전해듣고 서호수 일행은 한편으로는 놀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일본이 長崎를 통해 다량의 중국서적을 수입해가고 있었던 사실은 서호수와 동시대인인 이덕무나 정약용 등도 이미 거론했던 사실이다.

·근자에 江南의 서적이 長崎에 모여들어, 집집이 글을 읽고 사람마다 문장을 쓰니, 오랑캐의 풍속이 점점 변하여 간다.¹⁶⁾

·대저 일본은 본래 百濟를 통해서 서적을 얻어 보게 되었으므로 처음에는 몹시 몽매하였다. 일단 직접 중국의 절강(浙江) 지방과 통하게 된 뒤로는 중국의 좋은 서적을 사가지 않은 것이 없었다.¹⁷⁾

앞의 글은 이덕무가 일본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실을 모아 수록한 『蜻蛉國志』의 일부이고, 뒤의 글은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둘째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의 일부이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쓰인 글들로, 일본이 長崎를 통해 中國 江南으로부터 중국 서적을 많이 구입해가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 지식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북경의 琉璃廠을 통해 서적을 구매하던 우리와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浙江省을 중심으로 한 江南 지역과 長崎간의 무역선을 통해 서적을 구입했던 것이다.

이렇게 長崎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들어간 책을 舶載書라고 불렀는데, 舶載書란 배에 실려온 책이란 뜻이므로 본래는 朝鮮本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점차 중국으로부터 건너간 책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졌다. 舶載書는 舶載本이라고도 불렀으며 이들 책에 대한 목록이 舶載書目이다. 舶載書目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宮內廳書陵部藏의 舶載書目이다. 58卷 40책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序跋도 없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1694년에서 1754년까지 중국선박이 배에 싣고 長崎에 가져간

求 三件去矣 我人羞媿 不能答”

16)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64 『蜻蛉國志』5 藝文篇, “近者 江南之籍 輻輳于長崎 家家讀書 人人操觚 夷風漸變”

17) 丁若鏞, 『與猶堂全書』 1集 卷21 面10 『示二兒』, “大抵日本 本因百濟 得見書籍 始甚蒙昧 一自直通江浙之後 中國佳書 無不購去”

서적의 목록과 이 책들의 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¹⁸⁾ 17세기 후반만 해도 중국선박이 서목을 싣고 長崎에 가게 될 정도로 일본에서의 중국서적 수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舶載書의 구매에 가장 앞장을 선 것은 江戸幕府였다. 幕府에서는 寛永年間(1624-1644)에 江戸城 가운데에 있는 紅葉山 기슭에 서고를 세웠는데 이것이 內閣文庫의 전신인 紅葉山文庫이다. 紅葉山文庫에서는 舶載書를 우선적으로 收藏하였으며, 특히 8代將軍인 德川吉宗(1684-1751)은 가장 열심히 舶載書의 수입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幕府에서는 여러 大名으로부터 귀중서를 헌납받기도 하였는데, 1828년에 毛利高標(1754-1801)가 소장했던 漢籍 2만여책을 헌납받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紅葉山文庫는 幕府末期의 장서수가 11만 책에 달하였는데, 그 가운데 65%인 7만여책이 漢籍이었다고 한다. 明治維新 후 이 책들 가운데 귀중본 3만 책 정도가 內閣文庫에서 宮内廳書陵部로 이관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舶載書目 역시 이 과정에서 宮内廳書陵部 소장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舶載書의 구입에 열을 올린 것은 藩主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幕府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藩에 文庫를 세우고 舶載書를 포함하여 많은 서적을 소장하였는데, 名古屋의 德川宗勝(1705-1761)이 세운 明倫堂과 和歌山藩의 德川治寶(1771-1852)가 세운 偕樂園文庫, 佐伯藩의 毛利高標(1755-1801)가 세운 佐伯文庫, 彦根藩의 井伊直中(1766-1831)이 세운 稽古館 등이 대표적이다. 德川宗勝(1705-1761)이 세운 明倫堂의 문고는 후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蓬左文庫의 전신으로, 德川家康의 9남인 義直이 분가할 때 받은 장서만 2,838책이었다고 한다. 偕樂園文庫는 음악 관련 장서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 1899년에 東京으로 옮겨 南葵文庫가 되었으며, 1920년 현재 장서수가 12만 책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偕樂園文庫에 소장되어 있었던 장서 가운데 漢籍 1만 6천여 책은 紀州藩文庫라는 이름으로 和歌山大學附屬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佐伯文庫를 세운 毛利高標는 서지학에도 통달했던 장서가로 그는 주로 중국과 조선의 희귀본을 위주로 수집하였다고 하며, 1829년에 佐伯文庫에 소장되고 있었던 4만여 권의

18)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岩波書店, 1999) pp.457-458 「舶載書」 및 「舶載書目」, 참고.

漢籍 가운데 2만여 권은 幕府에 헌납되어 紅葉山文庫에 포함되었다. 稽古館은 1830년에 弘道館으로 개칭되었는데, 그 당시 장서가 2만 3천여 권이었다고 한다.

江戸幕府 시대에는 이들 藩主 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대규모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伊藤仁齋(1627-1705)와 木村恭孔(1736-1802) 靑柳文藏(1761-1839) 野口梅居(1785-1865)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伊藤仁齋와 木村恭孔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었으며, 이덕무의 『蜻蛉國志』를 비롯한 일본 관련문헌에 거의 빠짐없이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伊藤仁齋는 흔히 古學派라고 불리는 堀川學派의 창시자로 京都의 자택에 私塾인 古義堂을 열어 문도를 가르쳤는데, 家塾이 3번 불타고 후손들이 가난 때문에 장서 일부를 팔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天理圖書館에 ‘古義堂文庫’라는 이름으로 만여 책이 전해지고 있다. 18,9세기에 장서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木村恭孔은 주로 堂號인 蒹菴堂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大阪에서 酒造業을 해서 재산을 모았으며 이 돈으로 書籍과 書畫, 地圖, 標本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蒹菴堂文庫의 소장 규모는 3만여 권에 달했다는 사실이 박지원과 이덕무의 글에도 실려 있다. 靑柳文藏(1761-1839)은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법률에 밝아 상인들에게 소송을 지도해주기도 하고 무역을 해서 거금을 모았으며 이 돈으로 2만여 권의 책을 샀다고 한다. 1830년에 유지비 천냥과 함께 仙臺藩에 자신의 장서를 헌납하였는데, 당시 헌납한 책이 만권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靑柳文藏이 헌납한 이 책은 현재 宮城縣圖書館에 ‘靑柳館文庫’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

野口梅居(1785-1865)는 名古屋城 서쪽 枇杷島의 채소시장의 長이었는데 학문을 좋아하여 여러 종류의 책을 폭넓게 읽었으며 장서가 많아 岡田文園과 더불어 통칭 ‘兩家の 2萬 卷’이라고 일컬어졌다고 한다. 그는 岡田文園 小田切春江 小寺玉晃 細野要齋 등과 함께 동호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른바 三都라고 칭해지던 京都, 江戸, 大阪이 아닌 名古屋에서 藏書癖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동호회를 열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¹⁹⁾

19) 일본의 장서가에 대해서는 전계한 『日本古典書誌學辭典』의 해당 조항들을 요약 정리하였다.

남공철의 장서벽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藏書癖으로만 보면 『지수염필』의 ‘장서가’조에서 거론되었던 진천현 초평리에 있었다는 만권루의 주인 이하곤도 이에 뒤질 것 같지 않다.

유독 서적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사람들 중에 책을 파는 것을 보게 되면 옷을 벗어던져서라도 그것을 샀다. 장서가 거의 만권에 이르렀는데 위로는 經史子集으로부터 아래로는 稗官小說과 醫書, 占術書, 道佛의 책에 이르기까지 다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²⁰⁾

이는 이하곤의 아들 이석표가 쓴 이하곤의 행장에 실려 있는 글이다. 이하곤은 증조부인 이시발이 駱尙志로부터 선물 받은 중국책 수천 권을 물려받기도 했거니와, 그 아들의 눈에 옷을 벗어던져서라도 책을 사려 한다고 보일 정도로 평소에 장서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공철이 자신의 藏書癖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贈元孺良在明序」은 본래 원재명이 藏書에 힘을 들이고 있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쓴 글이다. 남공철은 원재명의 아버지인 元仁孫(1721-1774)이 卿相의 신분에도 달리 좋아하는 것 없이 오직 책에만 從事하여 그 장서가 서울에서 으뜸이었다고 칭찬한 후, 원재명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공이 이미 책에 癖이 있고 또 昇平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힘을 들고 장서를 이룰 수 있었다. 내가 孺良(=원재명)과 더불어 장서의 성함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가히 행운이라 할 수 있으리라.²¹⁾

남공철은 자신들이 승평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규모의 장서를 소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적지않은 행운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그가 서적의 聚散이 治亂 및 盛衰와 관련이 있다고 본 때문이다. 남공철과 같은 시대를 살았고, 또 남공철 못지않은 敬化세족이었던 李晩秀(1752-1820)는 자신의 형인

20) 李錫杓, 『南麓遺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卷5 「先府君行狀」, “獨酷愛書籍 見人鬻書者 至捐衣買之 所蓄 幾至萬卷 上自經史子集 下至稗官小說醫卜釋老之書 靡不畢具”

21) 南公轍의 앞의 글, “公其癖於書 又生於昇平之世 而得有力而致之 吾與孺良 得見其藏書之盛者 可謂幸矣”

李時秀와 庶弟인 李耆秀의 장서가 수천 권에 달한다고 하면서, 李耆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찍부터 鄴侯의 癖²²⁾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²³⁾

일본의 장서가들 가운데 木村恭孔의 藏書癖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일본 내에서도 정평이 나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과 物産의 학문을 가장 추앙하지만 나는 그가 책을 읽음에 있어 요령을 잘 터득한 것을 부러워한다. 무릇 배에 실어온 異書에 대해서는, 그 新本과 舊本의 同異, 增減, 出入 등을 역력히 암기해서 묻는 대로 대답한다.……그는 長崎에 놀러갈 때 또한 妻妾을 데리고 간다.²⁴⁾

·우리나라는 바다길로 재물을 유통시키지 않기 때문에 文獻이 더욱 희귀하다. 따라서 서적이 미비되고 三王의 사적도 모르는 것은 오로지 이 때문이다. 일본사람들은 江南과 통상했으므로 명나라 말기의 古器·書畫·書籍·藥材 등이 長崎에 꼭 차 있다. 일본의 蒹葭堂 주인 木世肅은 서적 3만 권을 비장하고 있고 또 중국의 명사들과 많은 교제를 맺고 있다. 그래서 文雅가 바야흐로 성대하여 우리나라에 견줄 바가 아니다.²⁵⁾

앞의 글은 木村恭孔등과 함께 混沌社라는 詩社를 맺은 賴惟完이 쓴 것이고, 뒤의 글은 이덕무가 홍대용이 중국에 갔을 때 嚴誠등과 교류한 것에 평을 붙여 기록한 것이다. 중국선박에 실려온 異書들의 내용을 훤히 꿰뚫어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주 長崎에 왕래했음을 알 수 있다. 大阪에서 長崎까지는 수천 리가 되는데, 이렇게 먼길을 마다 않고 그것도 妻妾을 함께 데리고 다녔으니 책에 대한 그 열정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덕무의 글은 박지원의 『銅蘭涉筆』에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실려 있어, 당시 조선의 지식인사회 일각에서 강남과의 직

22) 鄴侯는 唐나라 李承休의 장서가 2만여 권에 달했으므로 후에 장서가 많은 것을 비유해서 鄴侯書라고 했다 한다.

23) 李晚秀, 『展園遺稿』 卷2 面15 『書巢記』, “吾伯氏有書數千卷……吾弟松宅居士 蚤有鄴侯之癖 其書又不啻數千卷”

24) 賴惟完, 『春水遺稿別錄』 卷2 面8-9 『在津記事』下, “人最推其書及物産之學 余則欽其讀書善得要領 凡舶來異積 其新舊同異增損出入之類 歷歷暗記 隨問響應……其遊長崎 亦携妻妾”

25) 이덕무의 전게서 卷63 『天涯知己書』 『筆談』, “我國不以水路通貨 故文獻尤質 實書籍之不備 與不識三王事者 全由此也 日本人通江南 故明末古器及書畫書籍藥材 輻輳于長崎 日本蒹葭堂主人木世肅 藏秘書三萬卷 且多交中國名士 文雅方盛 非我國之可比也”

통을 통해 長崎에 물화가 넘쳐나고 날로 문헌이 풍부해지는 일본의 현실을 부러워하기도 했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서적과 함께 古董書畫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書帖과 畫帖의 경우, 서적과의 경계선이 모호하기도 하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한일 양국의 장서자들은 대부분 書畫古董의 수집에도 서적 못지않게 공을 들였다. 다음은 만권서의 소장자로 알려진 李侯의 생활 모습을 나타낸 글이다.

만년에 집의 남쪽에 堂 하나를 지어 四樂堂이라고 하였다. 堂의 동쪽에 또 閣 하나를 지어 서적 만 권을 소장하였으며 연못을 파서 연을 심었다. 매화와 난초, 소나무와 국화를 옮겨 심고는 두 마리의 학을 그 사이에 살게 했다. 또 좌우에 琴書를 놓아두고 항상 유유자적하였다. 古跡에 탐닉하여 누가 기이한 書畫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重貨를 아끼지 않고 그것을 샀다. 衡山의 神禹碑나 趙孟頫의 眞跡 같은 것이 가장 귀한 보배이다. 일찍이 古人들이 글씨에 대해 논한 중요한 말을 분류해 모아서 책 한 권으로 만들고 이를 『臨池說林』라 이름하였다. 또 『대동금석첩』을 지었으며, 歐陽脩의 『集古錄』 같은 책을 비치해두고 조석으로 완상하였다.²⁶⁾

飲茶가 빠지기는 했지만 萬卷書의 所藏과 園林 造成, 花鳥 探賞과 彈琴, 古董 書畫 耽溺과 稗官異書의 閱讀 등. 이야말로 영락없이 조선 후기 소품가들의 생활상이다.²⁷⁾ 이우는 1671년과 1686년 두 차례에 걸쳐 燕行을 하였는데, 상당량의 패관이서와 고동서화를 구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우는 封君된 종친이요 한 시대를 풍미한 서예가였으므로 그의 예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京華世族의 일각에서는 17세기 후반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晚明散人の 雅趣’를 즐기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이덕무나 박지원이 거론한 바 있는 蕪菴堂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그가 죽은 후 幕府에서 명해서 그가 남긴 책들

26) 申翼相의 앞의 글, “晚構一堂於舍南 號曰四樂 堂之東 又置一閣 藏書萬卷 鑿塘種蓮 列蒔梅竹松菊 而以雙鶴棲其間 右左右琴書 常悠然自適焉 耽耆古跡 文人有異書奇畫 不惜重貨以購之 如衡山神禹碑 趙孟頫眞跡 最絕寶也 嘗類聚古人論書要語 爲一冊 名以臨池說林 又作大東金石帖 如歐陽公之集古錄 以備朝夕觀玩”

27) 필자의 전개 논문.

을 금 5백냥을 하사한 후 收納하게 하였을 때 이를 살펴보니 모두가 奇僻한 책들이었다고 한다.²⁸⁾ 기벽함이란 蒹葭堂의 性行에 견주어 볼 때, 대체로 書畫古董과 관련된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蒹葭堂과 함께 詩社인 混沌社의 일원이었던 岡田寧處(1742-1810)와 尾藤二洲(1747-1814)의 雅趣 역시 유명하다.

岡田寧處는 阿波邸의 小吏였는데 기예에 능한 것이 많았다. 시와 서예를 좋아하였으며 서예는 張瑞圖(1570-1644)를 배웠다. 篆刻과 丹青에 모두 공교로웠으며 또한 활도 잘 쓰고 칼질도 잘하였다. 그리고 아쟁과 피리에도 능했다고 한다. 집이 매우 비좁았는데도 書畫와 硯席, 武器를 놓아두는 것이 매우 아취로웠다.²⁹⁾

岡田寧處는 小吏였으므로 藏書家は 될 수 없었지만 詩書에 능하고 篆刻이나 書畫, 音樂 등에 두루 통달하였으며 雅趣를 즐겼던 것이다. 尾藤二洲는 那波師曾의 門徒로 ‘異學의 禁令’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나, 混沌社 시절에는 다른 社友들과 마찬가지로 晚明散人流의 아취로운 삶을 즐겼다. 스스로를 高臥子라고 칭하면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즐겼으며, 西湖의 孤山에 은거하면서 梅妻鶴子の 삶을 보냈던 林逋의 삶을 본받고자 하기도 했다. 그의 ‘이른 봄에 寒泉書堂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먼저 운을 얻다’(春初 寒泉書堂雅集 得先韻)이라는 시에 “이날 거문고와 바둑, 書畫와 생황과 피리 등이 다 구비되었다”는 自註가 붙어 있다. 그리고 그의 문집인 『靜寄軒集』 가운데 4권이 詩이고 2권이 題跋과 雜贊인데, 그 대부분이 書畫와 관련된 것이다. 이밖에 福井의 藩主로 2만여 책의 장서가지기도 했던 松平定信(1759-1829)도 古董書畫에 탐닉하여 85책에 달하는 古董書畫의 圖錄인 『集古十種』을 편찬하기도 했다.

이처럼 18,9세기의 한일 문사들은 稗官異書を 포함한 서적의 所藏은 물론, 陳繼儒가 말한 바 있는 一人獨享之樂의 焚香·試茶·鼓琴·潦花·對畫·漱泉·支杖·嘗酒·看山·臨帖·刻竹 등과 같은 雅趣를 즐겼던 것이다.

28) 賴惟完의 전거서 卷3 面18 「在津記事」下, “沒後 官命納遺貯書籍 賜金五百兩 余閱其書 皆奇帙僻書”

29) 앞의 책 卷1 面5, “君章 本阿波邸小吏 多伎能 嗜詩及書 書學張瑞圖 篆刻丹青皆巧 又善射 善劍 善箏及筆策 邸舍之狹隘 而書畫硯席 及武器位置極趣”

이러한 삶의 모습을 정조는 ‘唐學’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強作雅態’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唐學에 세 가지가 있으니, 明清間의 小品異書を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있고, 오로지 西洋曆數의 학문을 숭상하는 자가 있으며, 衣食器皿에 燕市の 물건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폐단은 한가지이다.’³⁰⁾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明清間의 小品書を 많이 소장하고 있는 藏書家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국왕이 唐學의 첫 번째로 지적할 정도로 明清小品書의 소장이 習癖 또는 雅態를 뽑내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것이 일종의 사회적 풍기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明清小品書의 구입은 대개 중국에 가는 사신들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사신의 서적 구입열은 중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던 모양이다.

조선국 사람은 책을 가장 좋아한다. 무릇 사신의 入貢은 5,60인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古書나 新書, 혹은 稗官小說 가운데 그 나라에 빠진 것을 날마다 시중에 나가 각기 書目을 베껴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두루 물어보면서 重金을 아끼지 않고 구입해 돌아간다. 그런 때문에 그 나라에는 도리어 異書의 소장본이 있는 것이다.³¹⁾

明末清初의 문인인 姜紹書의 『韻石齋筆談』에 실려 있는 「朝鮮人好書」라는 글의 일부이다. 書目을 베껴 들고 여기저기 수소문해가면서 돈을 아끼지 않고 책을 사는 사신들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글이 쓰인 시기는 이른바 明清小品文이 성행하던 明末清初이므로 姜紹書가 말한 新書란 결국 明清小品文을 내용으로 하는 明末清初文集이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稗官小說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사신들이 책을 구입함에 있어 무엇보다 俳諧소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우의 예도 그러하거니와,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장서는 燕行과 불가분의 관

30) 正祖, 『弘齋全書』 日得錄 訓語條, 卷176 面34, “唐學有三種 有多蓄明清間小品異書者 有專尙西洋曆數之學者 有衣食器皿之喜用燕市之物者 其弊則一也”

31) 姜紹書, 『韻石齋筆談』 卷上, “朝鮮國人最好書 凡使臣入貢 限五六十人 或舊典 或新書 或稗官小說 在彼所缺者 日出市中 各寫書目 逢人遍問 不惜重直購回 故彼國反有異書藏本也”

계에 있다. 직접 중국에 한배 가득 책을 구입해온 兪絳과 중국인 駱尙志로부터 수천 권의 책을 선물받은 李時發을 제외하고는, 대개는 직접 사신으로 燕京에 갔을 때 書籍과 古董書畫를 구입하거나 譯官을 통해 燕京에서 유입된 書籍과 고동서화를 구입했던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이제 판돈녕부사 驪興 閔靜能公이 장차 명을 받아 燕京에 가게 되자 떠나기에 앞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번 使行에서 굳이 연경 시장에서 물건 하나라도 주머니 속에 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적 가운데 斯文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또한 뜻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긴요한 것을 그대가 말해보지 않으려오?” 내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예전에 병오년에 壺谷 南尙書가 사신으로 북경에 가게 되었을 때에 선친이 『天原發微』 『性理諸家解』 『皇極經世釋義』 등 책 3권을 사오라고 청했던 일이 있습니다.”³²⁾

이는 1709년에 冬至使로 연경에 가게 된 閔鎭厚(1659-1720)를 위해 李喜朝(1655-1724)가 써준 送序이다. 굳이 燕京 시장에서 물건 하나도 담아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사신들이 燕京에서 이런저런 물건을 많이 사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진후 자신은 여타 물건은 사오지 않겠지만 서적은 이와 달라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없으니 이희조에게도 사올 책을 말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희조는 병오년(1666)년에 자신의 선친 李端相(1628-1669)도 燕行하는 南龍翼(1628-1692)에게 부탁해서 책 몇 권을 산 적이 있음을 말하였다. 민진후와 이희조는 처남매부 사이이니 그럴 법도 하기는 하지만, 冬至正使가 스스로 燕京에 가서 무슨 책을 사다 줄까 묻고, 燕行하는 사신에게 또 책명을 정해서 사오기를 청할 정도로 燕行은 중국서적 소장자의 거의 유일무이한 경로였던 것이다.

민진후보다 약간 뒤인 1720년에 燕行했던 李宜顯(1669-1745)의 『庚子燕行雜誌』를 보면 당시에 연행사신을 통해 수입된 책들이 주로 어떤 책들이었는가를

32) 李喜朝, 『芝村集』 卷19 面11 「別判敦寧閔靜能赴燕序」, “今判敦寧府事驪興閔公靜能 將銜命赴燕 臨行 謂余曰 吾於是行也 固不欲以燕市一物■於橐中 然書籍之關係斯文者 則亦不能無意 其最緊且要者 子盍言之 余對曰 諾 昔在丙午壺谷南尙書之使北京也 先君子請購天原發微性理諸家解皇極經世釋義三書”

알 수 있다. 이의현은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서패에 해당되는 序班을 통해 책을 구입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 이 序班들의 집은 대개 南方에 있고, 書冊 또한 모두 남쪽에서 가져와서 燕京에서 매매를 한다고 했다. 江南의 상인들과 長崎에서 직통하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使行을 통해 燕京에서 서적을 사오기는 했지만, 그 출처는 결국 明清小品文의 본거지인 江南이었던 것이다.

이의현 일행이 당시에 燕京에서 사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은 다음과 같다.

『冊府元龜』 301권, 『續文獻通考』 100권, 『圖書編』 78권, 『荊川稗編』 60권, 『三才圖會』 80권, 『通鑑直解』 24권, 『名山藏』 40권, 『楚辭』 8권, 『漢魏六朝百名家集』 60권, 『全唐詩』 120권, 『唐詩正聲』 6권, 『唐詩直解』 10권, 『唐詩選』 6권, 『說唐詩』 10권, 『錢註杜詩』 6권, 『瀛奎律髓』 10권, 『宋詩鈔』 32권, 『元詩選』 36권, 『明詩綜』 32권, 『古文覺斯』 8권, 『司馬溫公集』 24권, 『周濂溪集』 6권, 『歐陽公集』 15권, 『東坡詩集』 10권, 『秦淮海集』 6권, 『楊龜山集』 9권, 『朱韋齋集』 6권, 『張南軒集』 20권, 『陸放翁集』 60권, 『楊鐵厓集』 4권, 『何大復集』 8권, 『王弇州集』 30권, 『續集』 36권, 『徐文長集』 8권, 『抱經齋集』 6권, 『西湖志』 12권, 『盛京志』 6권, 『通州志』 8권, 『黃山志』 7권, 『山海經』 4권, 『四書人物考』 15권, 『黃眉故事』 10권, 『白眉故事』 6권, 『列朝詩集小傳』 10권, 『萬寶全書』 8권, 『福壽全書』 10권, 『發微通書』 10권, 『壯元策』 10권, 『彙草辨疑』 1권, 『製錦篇』 2권, 『艷異篇』 12권, 『國色天香』 10권.

이의현 일행이 당시의 使行에서 가지고 온 책만도 도합 52종 1938권에 달했던 것이다. 이 가운데 이덕무의 문집에서 閲讀이 확인되는 明清小品書인 『圖書編』 『荊川稗編』 『三才圖會』 『徐文長集』 『明詩綜』 등이 눈에 띈다.³³⁾ 이밖에 『西湖志』나 『艷異篇』 등처럼 조선 후기 소품체산문가들에게 많이 읽혔던 소품서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던 것이다. 이의현 일행은 위의 서적 이외에도 米元章書 顏魯公書家廟碑 徐浩書三藏和尚碑 趙孟頫書張真人碑 董其昌書 神宗御畫 西洋國畫 織文畫 菘菜畫 北極寺庭碑 등의 서화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의현은 “명의 문집이 세상에 행해지는 것이 거의 充棟汗牛에 이를 정도로

33) 이덕무가 읽은 서적들의 목록은 김영진의 전개 논문에 정리되어 있다.

다 거론할 수 없지만 대략 4파가 있는데, 내 집에 소장된 책으로 말하고자 한다.”³⁴⁾고 하면서 明의 문학유파를 4가지로 갈라 서술하였다. 이의현은 이 글에서 李贄를 詭怪하다고 하면서 陽明의 한 유파로 보고, 徐渭와 袁宏道는 慧利한 것이 特長이라고 하면서 歸有光나 唐順之와 한 유파로 보았다. 이의현이 燕行에서 직접 『徐文長集』을 구입해오고, 또한 李贄와 袁宏道の 문집도 접하기는 했지만 이들 문학을 수용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Ⅲ. 韓日兩國 文士들의 明清小品文 受容과 小品文의 擴散

우리나라에서 袁宏道와 陳繼儒 등의 晚明小品을 가장 먼저 수용한 인물은 許筠이다. 許筠의 문장을 소품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의 尺牘은 분명 晚明小品家의 尺牘에 접근되어 있으며 그의 문학관 역시 擬古文派와 唐宋古文派, 그리고 公安派와 竟陵派 등이 서로를 공박하면서 공존하고 있었던 晚明의 문단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분명 한 것은 허균이 공안파 문학이 일세를 풍미하던 시기에 직접 중국에 가서 수천 권의 서적을 사 가지고 돌아왔고 그 가운데 상당부분이 포함된 만명소품서를 읽었다는 것이다. 허균은 北京에서 4천여권의 서적을 사오기에 앞서 賈維翰을 통해 晚明의 筆記小品인 『夷門廣牘』과 『留青日札』을 접한 바 있다. 『留青日札』은 조선후기의 소품체산문가들이 애호한 『西湖遊覽志』의 저자 田汝成의 아들인 田藝衡이 지은 것이다. 『西湖遊覽志』는 『西湖志』라고도 하는데, 이는 庚子燕行時 이의현 일행이 구입한 52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허균도 『西湖志』를 접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의 척독에 나타난다. 이어 北京에서 4천여권의 책을 사온 후에 작성된 『閑情錄』에서는 더 나아가 袁宏道の 『瓶花史』와 『觴政』, 陳繼儒의 『書畫金湯』 『眉公秘笈』 『巖栖幽事』 『小窓清記』 『眉公十部集』 등 다

34) 이의현의 앞의 책 卷28 面28 『陶谷叢說』, “明文集行世者 幾乎充棟汗牛 不可殫論 而大約有四派 姑就余家藏而言之”

양한 晚明小品書들을 인용하고 있다. 허균은 이처럼 다양한 晚明小品書들을 접하기는 하였지만, 그가 晚明小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거나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³⁵⁾

허균에 이어 金錫胄(1634-1684), 任壁(1640-1724) 金鎭圭(1658-1726) 등도 袁宏道의 문집을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우리나라의 문체가 金錫胄와 金昌協(1651-1708)에 이르러 일변했다”³⁶⁾고 하였는데, 金錫胄의 문체 변화를 사실로 볼 경우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요소 중의 하나로 明清小品書 閱讀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근래의 文體가 점점 옛날과 같지 않으니 매우 걱정이 된다. 경은 息菴의 詩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병모가 아뢰기를, “역시 臣으로서서는 미치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우리 나라에서 명나라 문체의 못된 폐단을 답습하게 한 풍조를 이 글이 실제로 열어놓았다고 생각한다. 그 자신은 그런 글을 짓는 것에 대해 꽃과 달을 새긴 비단과 같다고 하면서, 동방의 찌든 때를 한 번 씻어내게 되었다고 하였지만, 순일하며 혼후한 점에 있어서는 太虛亭이나 四佳 등 諸子보다도 훨씬 못하다. … 또 農巖의 문장을 그 누가 推重하지 않겠는가. 나 역시 매우 좋아한다. 그러나 자신은 늘 명나라 사람들의 어투를 피하려 힘쓴다고 했으나 가끔 그런 병통을 면하지 못한 곳이 나오곤 한다.”³⁷⁾

이는 조정에서 科文의 文體變化와 관련된 거둬드는 논란 중, 정조가 우리나라 문단의 흐름을 말하면서 김석주와 김창협이 문체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김석주의 문장을 ‘명나라 문체의 좋지 않은 폐단을 답습’하는 것으로, 農巖의 문체에 대해서는 자신은 명나라 사람들의 어투를 피한다고 하면서도 간혹 明

35) 허균의 尺牘과 관련해서는 김풍기의 『朝鮮中期 古文의 小品文의 상황과 허균의 尺牘』, 『민족문화연구』 3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과 필자의 『許筠의 尺牘에 대한 一考察』, 『한국한문학회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에서 다루었다. 필자는 앞의 논문에서 허균이 접한 晚明小品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36) 正祖, 『弘齋全書』 卷164 面11, “我國文體 到金錫胄金昌協 一變”

37) 『正宗大王實錄』 卷43 面53, 正祖19年 11月 甲寅條, “近來文體 漸不如古 甚可憂也 卿以息菴詩文 作如何看 秉模曰 亦自有難及處矣 上曰 予則以爲我國之襲用明文 未弊 此文實啓之 自謂作文 如錦繡花月 一世東方陳垢 而其純實渾厚 反不如太虛亭四佳諸子遠矣……農巖文章 孰不推重 予亦甚好之 而自家每稱力避明人口氣云 而往往有未免處 此所謂文章 與時運高下者耶”

人의 口氣가 뒤섞이는 병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혹평하고 있는 것이다.³⁸⁾

김석주는 袁宏道の 『袁中郎集』을 읽고 그 체재를 써서 절구를 짓기도 하였다.³⁹⁾

千秋의 玉局은 문장에서 성인인데, 재주있는 中郎이 그를 이을 만하다고 하네. 마음을 쾌활하게 하고 날며 움직이는 듯한 말이요, 詩卷을 펼쳐보면 마치 구름 속으로 나는 듯하네.	千秋玉局聖於文 才調中郎足繼云 快活心腸飛動語 展來詩卷欲凌雲
--	--

玉局은 玉局館이니 이는 오랫동안 玉局館 提學를 맡았던 蘇軾을 가리킨다. 蘇軾이 文에서는 성인과 같다 하면서 재주 있는 袁宏道가 그를 이을 만하다고 했다. 袁宏道の 문장을 평하여 마음을 쾌활하게 해서 마치 날아 움직이는 듯한 말이라 하고 시를 읽으면 마치 구름 속을 난다고 했으니, 袁宏道の 시문에 대해 극찬을 한 것이다. 김석주는 袁宏道와 徐渭, 王穉登 등 江南 출신 3인의 長律 백여편을 뽑아 『錦帆集』을 만들기도 했다.⁴⁰⁾ 이 江南 출신의 3인은 대표적인 晚明小品家인데, 이들의 시를 모아 책을 내고 그 책에 스스로 序文을 쓴 것으로 보아 김석주가 晚明小品에 대해 느끼고 있던 호감을 짐작할 수 있다. 3인의 작품을 뽑아 편찬하면서 錦帆集이라 한 것으로 보아, 이 가운데 袁宏道를 가장 높이 평가했던 것 같다. 그러니 明清의 문장은 嚆殺하고 奇詭하여 治世의 문장이 아닌데, 그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이 袁中郎集이라⁴¹⁾고 했던 正祖가 문체의 변화가 김석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만하다.

이러한 김석주의 문집에 서문을 써준 사람이 곧 김창협이다. 김창협은 이의 현의 스승이기도 하다. 김창협 역시 『袁中郎集』을 읽기는 하였으나, 明末의 文

38) 당시 논의된 科文의 文體變化에 대해서는 즐고, 「正祖年間 科文의 文體變化와 文體反正」(『韓國漢文學研究』 제16집, 韓國漢文學會, 1993)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

39) 金錫胄, 『息庵遺稿』 卷5 面10 「讀袁中郎集 仍用其體却賦二絕」

40) 앞의 책 卷8 面33 「錦帆集序」

41) 『承政院日記』 第1696冊 正祖15年 辛亥 11月望前, “大體明清之嚆殺奇詭 實非治世之文 而袁中郎集 爲其最矣”

士들을 싸잡아 몹시 혹평하였다.

明末의 文士들은 입만 열면 弄筆하고 움직일 때마다 禪理를 말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허튼 것이어서 근거가 없는데, 禪에서 또한 일적이 무엇을 얻을 것이 있었던가? 이제 『中郎集』을 읽으니 한편으로는 禪과 佛을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색에 빠지고 변태가 된 것이었다. 이는 마치 백정과 술장수가 경전을 읽는 것과 같으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⁴²⁾

김창협이 이 글을 쓴 것은 그가 죽기 1년 전인 1707년의 일인데, 이에 앞서, 1706년 8월에 任墜은 김창협으로부터 『袁中郎集』을 빌려 본다. 그렇게 『袁中郎集』을 혹평했던 그가 임방에게 『袁中郎集』을 빌려주는 것은 왠지 어색한데, 최근 발굴된 김창협의 『文趣』에 袁宏道の 山水遊記가 7편이나 실려 있다는 것으로 보아⁴³⁾ 金昌協 역시 일정부분은 袁宏道の 문학적 성취를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방은 『袁中郎集』에서 운을 취해 시를 짓기도 하였으며,⁴⁴⁾ 袁宏道の 尺牘을 모아 『石公尺牘』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펴내기도 했다. 袁宏道の 小札短簡이 비록 세상에 傲然하고 사람들을 놀리는 浪漫과 遊戲의 말이 많기는 하지만, 모두가 奇警하여 『石公尺牘』을 펴낸 임방의 변이다.⁴⁵⁾ 임방은 이 책의 서문에서 예전에 그의 죽은 친구 趙亨期로부터 『袁中郎集』이 볼 만하다는 언명을 받고 이 책을 김창협으로부터 빌리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형기는 경기감사를 하다 1699년에 죽었으므로, 늦어도 17세기 후반에는 문인들이 서로 袁宏道の 문집을 읽기를 권할 정도로 조선 문단에서 公安派 문학이 확산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허균 이후로 明清小品文의 수용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수용한 문사는 金錫胄라고 할 수 있고 明清小品文에 호의적이었던 이의현과 임방은 金昌協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문화지도를

42) 金昌協, 『農巖集』 卷34 面46 「雜誌」, “明末文士 開口弄筆 動談禪理 其實皆浮浪 無根 於禪亦何嘗有得 今讀中郎集 一邊說禪談佛 一邊耽酒戀色 此如屠沽兒誦經 直是可笑”

43) 김영진의 앞의 논문. p.40

44) 任墜, 『水村集』 卷5 面11 「病臥驪岸 用袁中郎集中韻 口號走筆」

45) 앞의 책 卷9 面13 「書公尺牘卷首」, “其中小札短簡 雖多傲世玩人漫浪遊戲之語 儘奇警無凡筆 可想其爲人之出塵 余絕愛之 遂手錄一小冊 以爲欹枕禦睡之資。 題曰石公尺牘”

깨끗이 파악하고 있었던 정조로서는 김석주와 김창협으로부터 문체가 일변했다고 할 만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公安派의 문학을 최초로 수용한 문인은 元政(1623-1668)으로 밝혀져 있다. 1659년, 元政은 무역상을 따라 중국에서 건너온 후 長崎, 京都, 防長, 江戸 등을 거쳐 尾張에 자리를 잡은 陳元贊(1587-1671)과 운명적인 조우를 하게 된다. 陳元贊로부터 袁宏道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元政은 시장에서 『袁中郎集』을 사 가지고 돌아와 이를 읽고는 陳元贊에게 그 느낌을 이렇게 말했다.

며칠 전에 시장을 뒤져 『袁中郎集』을 구했는데, 樂府의 妙絶함을 다시 말할 수가 없습니다. 『廣莊』의 여러 편은 그 識見이 더없이 높고 『瓶史』의 風流는 가히 그 사람됨을 상상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赤牘 가운데 佛法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 견해가 가장 正大하여 내가 자못 이를 좋아합니다. 足下가 말해주신 것 때문에 이 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책을 얻어 읽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足下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⁴⁶⁾

元政은 陳元贊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袁宏道의 문학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시장에서 『袁中郎集』을 구해 읽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袁宏道の 저작들에 대해 妙絶·絶高·最正 등의 말로써 호평하고 있다. 元政은 袁宏道の 책을 시중에서 찾아 구했다고 했으니, 元政이 陳元贊의 말을 듣고 袁宏道の 문집이 일본 내에 유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元政은 陳元贊과 함께 晚明小品를 읽기도 하고 시문을 창화하기도 하였는데, 元政과 陳元贊이 주고받은 시문을 모아놓은 것이 『元元唱和集』이다.

내가 일찍이 한가한 날에 元贊老人과 함께 근대 文士들인 雷何思 鍾伯敬 徐文長 등의 문집을 읽었는데, 袁中郎이 靈妙한 마음을 교묘히 드러내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⁴⁷⁾

46) 元政, 『艸山集』 卷3 面12 「與元贊書」, “數日之前 探市得袁中郎集 樂府妙絶 不可復言 廣莊諸篇 識地絶高 瓶史風流 可想見其人 又赤牘之中言佛法者 其見最正 余頗愛之 因足下之言 知有此書 今得之讀之 實足下之賜也”

47) 元政, 『元元唱和集』 「元政詩」 面16 「送元贊老人之尾陽詩 并引」, “余嘗暇日 與元贊老人 共閱近代文士雷何思宗伯敬 徐文長等集 特愛袁中郎之靈心巧發”

鍾伯敬과 徐文長, 袁中郎 등의 문집이야 당시의 우리 문장가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편이지만, 元政과 陳元贊은 雷何思처럼 당시의 조선 문단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었던 晚明小品家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다.

문학유과의 영향관계를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은 작자의 독서기록을 보는 것이다. 앞서 한일 양국의 장서가들을 살핀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책을 많이 읽을 개연성은 높지만, 책읽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장서가였다고는 볼 수 없다. 소장 漢籍의 書目이나 出版書目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漢籍들의 소장도서 목록이 흔하지 않고 출판서목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개인 문집 등에 남아있는 독서일기는 문학의 영향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절대적인 1차자료라고 할 수 있다.

18,9세기 소품가들의 明清小品 소장 및 독서에 대해서는 김영진이 상세히 논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일본쪽의 독서기록과 출판 관련 자료를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자.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소품가 이덕무의 『觀讀日記』와 『耳目口心書』와 유사한 책 가운데, 그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일본 막부의 유관 尾藤二洲(1745-1813)의 『靜寄餘筆』과 『冬讀書餘』가 있다.

이들 筆記는 尾藤二洲의 『靜寄軒集』에 실린 것으로 讀書記錄物과 斷想의 성격을 겸하고 있으며, 이덕무의 『耳目口心書』와 유사한 성격이다. 尾藤二洲의 이름은 孝肇, 자는 志尹으로, 二洲는 그의 호이다. 혹은 約山이라고도 한다. 伊豫의 川江 출신으로 사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片山北海의 문하에서 復古學을 강습하였으며 安芸의 賴春水와 친교를 맺었다. 이때 결성된 詩社가 混沌社이다. 막부에 의해 '異學의 禁書'이 시행된 다음해인 1791년 9월에 징소되어 幕府의 유관이 되었다. 이때는 한국에서 문체반정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靜寄餘筆』은 尾藤二洲가 젊은 시절에 적은 글들 가운데 시문과 역사, 잡사와 관련된 것을 따로 취하여 엮어낸 것이다. 이때가 1787년, 조선으로 보면 정조 11년의 일이다. 이어서 정조가 승하한 때인 1800년에는 그동안 그가 독서한 기록을 모아 『冬讀書餘』를 펴내었다. 1800년은 그가 막부의 유관이 된 이후의 일이므로, 『冬讀書餘』의 독서기록은 일본 지식인들의 독서성향을 대변하는 것

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는 조선에서 문체반정이 시행될 때이므로, 한일양국 지식인들의 지적 성향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靜寄餘筆』과 『冬讀書餘』의 기록을 바탕으로 尾藤二洲가 접한 것으로 확인되는 明清小品 및 文集은 다음과 같다.

- 徐渭, 『徐文長集』, 『十四夜詩』
- 王陽明, 『陽明文錄』
- 陳勳, 『元凱集』
- 朱國禎, 『湧幢小品』
- 徐宏祖, 『徐霞客遊記』
- 屠隆, 『考槃餘事』
- 茅坤, 『白華樓藏稿』
- 劉績, 『霏雪錄』
- 陳繼儒, 『羣碎錄』
- 王畿, 『王龍溪集』
- 李夢陽, 『李空同集』
- 錢謙益, 『新志開卷』
- 陸樹聲, 『清暑筆談』
- 陳繼儒, 『陳眉公文選』
- 袁宏道, 『袁中郎集』
- 羅洪先, 『羅念庵集』
- 楊慎, 『丹鉛總錄』
- 王士禎, 『香祖筆記』, 『池北偶談』
- 鍾惺, 『鍾伯敬集』
- 田汝成, 『西湖遊覽志』
- 陳宏緒, 『寒夜錄』
- 陳繼儒, 『眉公印譜』
- 李清, 『三垣筆記』
- 王世貞, 『讀書後』
- 胡應麟, 『甲乙剩言』

일별해 보더라도, 公安派와 竟陵派는 물론 前後七子の 주요 저작물이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異學의 禁止’에서 주된 금령의 대상이 된 陽明學 서적까지도 독서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尾藤二洲는 『學術辨序』에는 異學에 대한 그의 견해를 비교적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지금부터 10여년 서점에서 『三魚堂集』 1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보여주었다. 내가 취해서 살펴보니 淸나라 사람인 陸稼書의 문장이었다. 그 학문은 醇正해서 근세의 浮虛한 습속과는 같지 않은 듯했다. ……저 명나라 사람들의 학문 가운데 어떤 것이 王陽明의 부스러기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능히 王陽明이 그릇된 것을 알면 그 폐단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 폐단이 유래한 바를 알 수 있으면 어찌 바른 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요즘 사람들이 또한 王陽明은 禪學이라는 것을 알아 배척할 줄 알면서도 이에 그 학문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은 대개 그 이유에 대해 오히려 아직도 밝게 알지 못하기 때

문이다.⁴⁸⁾

尾藤二洲는 당시 문장의 浮虛함이 결국은 陽明學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당시 문장은 浮虛한데 陽明學에 뿌리를 둔 어떤 사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晚明小品, 稗史小品, 明清小品 등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새로운 사조로 인해 문장이 전과는 달라졌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異學의 禁畧’에서 배척하고자 했던 것은 주로 徂徠學이었다. 徂徠學의 反朱子學의 인식이 문제가 된 것이다. 徂徠學派에서는 문학에 있어 王世貞과 李攀龍을 추종하였다.

다만 배척의 대상이 주로 陽明學이었다는 것은 조선과 다른 점이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陽明學의 영향이 강력했던 것이다. 실제로 막부시대 일본 문단의 지적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江戶時代書林出版書籍目錄集成』에 보면, 다양한 양명학 서적이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 목록을 통해 일본에서 출판된 것으로 확인되는 王陽明의 저술과 출판연도는 다음과 같다.

- ◎ 『陽明文錄抄』, 門人 安成鄒, 5책, 寬文11년(1671), 延寶3년(1675)
- ◎ 『王陽明大文字』, 王陽明, 1책, 貞享2년(1685)
- ◎ 『陽明文錄』, 安成鄒, 6책, 延寶3년(1675), 天和 1년(1681), 元祿 9년(1696), 正德 5년(1715)
- ◎ 『傳習錄』, 王陽明, 7책, 正德5년(1715)
- ◎ 『傳習錄首書』, 三輪等 藏, 6책, 享保14년(1729)
- ◎ 『陽明學名義』, 三輪等 藏, 2책, 享保14년(1729)

王陽明의 책 가운데, 특히 『陽明文錄』은 십몇 년 간격으로 몇 차례에 걸쳐 잇달아 출판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힌 바 있는 『虞初新志』는 『江戶時代書林出版書籍目錄集成』에는 보이지 않고, 그 대신 李贄가 편찬한 『開卷一笑』가 눈에 띈다.⁴⁹⁾ 이는 일명 『山中一夕話』라고도 하는데, 稗史

48) 尾藤二洲, 「學術辨序」, 『靜寄軒集』 卷12, “距今十餘歲 書肆偶攜三魚堂集者一帙來示余 余取而覽之 清人陸稼書之文也 其學醇正 絕不似近世浮虛之習 ……夫明人之學 孰非王氏剩餘 故能知王氏之非 則知弊之所由 能知弊之所由 則豈有弗歸正者乎哉 今人亦有能斥王氏之學爲禪學 而乃不自知其學之同途轍焉者 於其所由 猶有所未明也”

小品을 모아놓은 것이다. 『開卷一笑』를 일본어 풀이를 붙여 출판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러한 성격의 서적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尾藤二洲의 독서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明清小品家の 핵심적인 인물인 徐渭, 陳繼儒, 袁宏道, 屠隆, 茅坤, 徐宏祖, 王士禎, 朱國禎, 鍾惺 등의 저작물을 두루 접하고 있었다. 또한 陳繼儒의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저작물을 두루 섭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眉公印譜』에는 題後를 쓰고 있으면서도, 晚明小品 내지 明清小品을 명시해서 배척하지 않고 陽明學을 주된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⁵⁰⁾ 이는 아마도 문체만정 당시 정조가 그러했던 것처럼 明清小品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젊은이들을 바른 학문으로 인도하면 문장의 폐습도 자연히 사라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異學의 禁書’ 역시 관권을 배경으로 한 사상금압이기는 하나, 文體反正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만큼이나, 明清小品文의 수용양상 역시 달리 나타난다.

文體反正은 국왕인 正祖가 직접 언급하고 추진한 것인데 비해, ‘異學의 禁書’은 幕府의 儒官에 의해 추진된 것이었다. 그런 때문으로 ‘異學의 禁書’이 발해진 후, 주로 江戸의 儒學者들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문인 학사들이 이에 반발하였다. 국왕이 앞장서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反正 對象까지 언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적었지만, ‘異學의 禁書’은 표면적으로는 막부 직할의 학당인 昌平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문단에 미친 영향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반의고적 문풍의 대두는 公安派 문학의 성행과 맞물려 있는데, 公安派 문학은 사상적으로는 양명학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異學의 禁書’ 역시 양

49) 일본에서는 1823년에 荒井公廉이 訓點한 『虞初新志』가 출판되었고, 1881년에는 일본 문인들이 쓴 稗史小品을 近藤元弘이 편집하여 7권 분량의 『日本虞初新志』를 펴냈다. 여기서 말한 『開卷一笑』는 아마도 『日本 開卷一笑』일 듯하다. 이는 李贄가 편찬한 『開卷一笑』를 축약한 후 張鹿鳴野人이 일본어로 풀이를 달아 大阪에서 稱航堂과 揚芳堂 同梓 형식으로 출판한 것이다. 서문으로 보아서는 1755년에 출판된 듯하다.

50) 비트오니슈우는 陳繼儒를 狂士라고 비판하면서도, 이를 陽明學처럼 특정 유파로 간주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尾藤二洲의 앞의 책 卷15, 『題眉公印譜後』, “眉公狂士 余嘗警其懶”

명학의 반주자학적 경향을 금령의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었으므로, 양명학을 반대하고 宋學으로 회귀하고자 했던 점에서는 양자의 목표가 일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학적 측면에서는 양자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의 경우, 王世貞과 李攀龍을 추종하던 의고문에 반발하는 고문파들을 중심으로 公安派 및 竟陵派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公安派와 竟陵派 역시 반주자학적 경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증하고 있었다. ‘異學의 禁書’을 발하도록 막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那波師曾은 擬古文을 ‘嘉隆의 僞體’라고 비판하였는데, 이 말은 徂徠學派의 반주자학적 경향을 겨냥하고 있었던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那波師曾이나 그의 영향을 받아 막부의 유관으로 ‘異學의 禁書’을 주도했던 尾藤二洲 등에게서 正祖처럼 명백히 明清小品文 내지 明末清初文集을 배척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막부 직할의 학당인 昌平黌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異學의 禁書’을 계기로 일본의 문단은 徂徠學의 여풍에서 벗어나 산문은 唐宋八家, 시는 宋詩를 표본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⁵¹⁾

‘異學의 禁書’과 관계없이 擬古文派와 公安派를 넘나든 경우도 있다.

처음에 宋을 배워 歐陽脩·蘇東坡로부터 陸放翁에 이르고, 중년에는 李白·杜甫를 宗으로 삼았으며, 錢·劉 등 여러 詩家로 緣飾하였다. 또 물러나서는 明을 배워 王·李의 銀鹿함을 감심하였다. 얼마 뒤에 袁中郎이 되고 徐文長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초·성당을 표준으로 삼았으며, 弇州·濟南을 문호로 삼았다.⁵²⁾

이는 『先哲叢談』에 인용된 梁田蛻巖(1672-1757)의 말이다. 梁田蛻巖이 스스로의 문학적 경향을 평하여 宋詩風에서 唐詩風으로, 擬古文에 경도되었다가 다시 公安派로 쏠리고, 다시 唐詩를 표준으로 삼았다가 王世貞과 李攀龍을 문호로 삼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梁田蛻巖은 만년에 『蛻巖集』을 내면서 袁宏道와 徐渭를 모방했던 시기의 작품들을 모조리 삭제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 源長卿은 1782년에 釋慈周(1734-1801)의 문집을

51) 이노구치 아츠시 저, 심경호·한예원 역, 『일본한문학사』, 소명출판, 1999. p.383

52) 앞의 책 p.349

편찬하여 펴내면서 “그의 초년작에 嘉隆僞調라고 이를 만한 것이 무릇 수백 수가 되는데, 이름은 赤城集이고 劉維翰이 서문을 썼다. 이제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수록하지 않는다.”⁵³⁾고 하였다. 문집을 편찬하면서 嘉隆僞調라고 일컫는 擬古派 경향의 시를 모두 삭제한 것과 ‘異學의 禁書’과의 상관관계는 좀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초년의 시들을 의고파 경향이라 하여 모조리 삭제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다. 松延年 역시 『六如菴詩鈔』에 서문을 쓰면서 釋慈周의 문학적 편력을 언급하고 있다.

내가 삼가 上人の 體裁를 논하자면, 근거는 老杜이고 香山과 渭南, 蘇·黃·范·楊으로 보태었다. 아래로는 靑丘·天池·唐解元·袁石公으로부터 錢牧齋와 程松圓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名家라고 할 만한 자들 가운데 그 장점을 취하지 않음이 없었다.⁵⁴⁾

요컨대 釋慈周가 杜甫와 白居易와 같은 唐代詩人, 蘇東坡와 黃庭堅 등의 宋代詩人, 袁宏道와 錢謙益 등과 같은 明清文人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학유파의 장점을 두루 취하여 그의 문학세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활동하던 시기는 달라도 梁田蛻巖과 釋慈周는 공히 唐詩風과 宋詩風, 擬古文派와 公安派를 넘나들면서 문학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문집을 펴냄에 있어 전자는 公安派의 흔적을, 후자는 擬古文派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우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이 당시의 시대상황 내지 문단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公安派와 擬古文派에 대한 시각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경우, 영정년간에 국왕이 明清小品을 반정의 대상으로 하여 文體反正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明清小品문이 성행했음에도 ‘小品’이란 題名の 著作物은 출판되지 못하였다.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비교적 후대의 일이라는 하지만, ‘小品’을 표제로 한 몇 종류의 저작물들이 출판되었다. 廣瀨淡窓

53) 源長卿, 『六如菴詩鈔序』, 『六如菴詩鈔』(『詩集 日本漢詩』第8卷, 汲古書院, 1985), “其初年之作 有所謂嘉隆僞調者 凡數百首 名曰赤城集 劉維翰序之, 今皆削而不錄也”

54) 松延年, 『六如上人詩集叙』, 앞의 책, “余竊論上人體裁 根柢老杜 輔以香山渭南蘇黃范楊 下自靑丘天池唐解元袁石公 至于錢牧齋程松圓 苟名其家者 無不摘取其長”

(1782-1856)의 『淡窓小品』과 賴山陽(1780-1832)의 『山陽小品』, 土屋榮이 1885년에 江戸시대 문인들의 소품을 모아 편찬한 『近世名家小品文鈔』와 龜山雲平이 1886년에 편찬한 『近古名家小品文範』 등이 그것이다. 『淡窓小品』은 본래 廣瀨淡窓이 자신의 소품들을 모아 『鼠壤餘蔬』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인데, 1849년에 廣瀨淡窓의 아들이 이책을 다시 편집해서 출판하면서 부친의 호를 따서 『淡窓小品』이라고題한 것이다. 『山陽小品』 역시 賴山陽이 직접題명한 것은 아니고, 1877년에 山口謙이 賴山陽의題跋과 短評 등을 모아 책을 펴내면서 『山陽小品』이라 이름한 것이다.

그런데 『近世名家小品文鈔』와 『近古名家小品文範』을 보면, 徂徠派로 일컬어지는 古文辭學派나 절충적 입장을 취한 古注派, 公安派를 적극 수용한 性靈派 등의 작품이 두루 실려 있다. 이는 이들 두 책이 출판된 19세기 후반의 日本의 小品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18,9세기의 일본 문인들이 전반적으로 明末淸初小品文에 젖어들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IV.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明清小品文의 受容과 관련하여 18,9세기 한일 양국의 문학적 흐름에 유사성이 있었다. 擬古文의 확산과 이에 대한 반발, 벌열층을 위주로 한 藏書癖과 출판기술의 발달과 구매력 확대에 따른 중국 서적 유통망의 급성장, 양명학과 이에 뿌리를 두고 있는 公安派의 성행과 이에 따른 지배계층의 적극적인 대응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는데, 공안파 수용의 초기 단계가 그러하고 明清小品文의 수용 및 확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국서적의 구입경로가 그러하다. 明清小品文을 포함한 중국서적 소장자들의 지역적, 계층적 분포에 있어서도 상이점이 드러났으며, 일종의 사상금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계층의 대응방식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明清小品文의 수용 양상을 보다 간명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양국의 장서가와 그들의 장서벽, 중국서적의 구입경로, 許筠과 元政, 이덕무와

尾藤二洲, 文體反正과 ‘異學의 禁書’ 등을 주된 단서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일 양국 공히, 일종의 사회적 풍기처럼 藏書癖을 지닌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대부분의 장서가가 京華勢族이었던 조선의 경우와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幕府와 藩主 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대형 장서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 결과 조선의 경우에는 주로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明清小品文이 애호되고 문학논쟁이 이루어진데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江戸에 한정되지 않고 京都와 大阪, 名古屋, 仙臺, 和歌山, 彦根 등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明清小品文의 수용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晚明小品을 가장 수용한 문인인 許筠은 사신을 따라 명나라에 가서 수천 권의 책을 구입해왔는데 일본에서 최초로 만명소품을 수용한 인물로 알려진 元政은 중국에서 망명한 陳元贊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晚明小品을 수용하였다. 허균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문인들은 燕京에 직접 가서 책을 사거나 아니면 역관이나 서패를 통해서 중국서적을 구입하였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른바 江南과 長崎를 오가는 중국상인들을 통해 중국서적을 구입했다. 조선측 문사들은 燕京에 직접 가서 직접 관심 있는 책을 골라 구매했으므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발성이 많이 작용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상인들이 유통경로가 되는 때문으로 당시의 사회적 수요를 잘 반영하는 측면도 있고 책의 구입과 문화적 접촉이 중국상인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도 있었다.

이덕무와 尾藤二洲는 생물연대로 비슷하거니와 文體反正과 ‘異學의 禁書’을 발한 권력의 핵심 주변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문장이 소품적 풍기를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양자 공히 상세하고 방대한 독서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현전하는 자료로만 볼 때, 이덕무는 袁宏道를 비롯한 공안파 문학에 좀더 경도되어 있었는데 반해 양명학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이 없다. 이에 반해 尾藤二洲는 陽明學에 대해 분명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公安派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다.

文體反正과 ‘異學의 禁書’은 거의 동시에 권력핵심부의 주도하에 ‘宋學으로의 회귀’라는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문체반정은

국왕의 직접적인 언급과 주도하에 이루어진 반면, ‘異學의 禁書’은 幕府의 부설 학당인 昌平黌을 대상으로 상징적으로 통제한 것이므로 조선처럼 일사분란하게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경우, 江戸의 徂徠學派를 중심으로 노골적인 반발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문체반정에서 公安派를 위시하여 明末清初文集이 반정의 대상으로 분명히 지목된 데 비해, ‘異學의 禁書’에서는 明清小品 내지 稗史小品 등은 특별히 거론되지 않고 주로 陽明學이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그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조선의 경우 小品이란 題名の 저작물이 아예 출판되지 않았는데 비해, 일본의 경우에는 몇 종의 책들이 小品이라는 題名하에 출판되었으며 일본문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稗史小品이 『日本虞初新志』라는 이름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조선의 경우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가 없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문집을 편찬하면서 혹은 公安派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을 삭제하고 혹은 擬古文의 경향의 작품들을 완전히 삭제한 예들이 있었다. 『蛻巖集』과 『六如菴詩鈔』가 그러한데, 이는 이들 책의 저자인 梁田蛻巖과 釋慈周가 唐詩風과 宋詩風, 擬古文派와 公安派를 넘나들면서 문학활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전반에 출판된 『蛻巖集』에서 公安派 경향의 작품이 삭제되고, 18세기 후반에 출판된 『六如菴詩鈔』에서 擬古文의 경향의 작품들이 삭제된 것은 일정부분 당시의 문단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尾藤二洲는 당시 일본 문단의 문풍이 浮虛하다고 보고 그 원인을 陽明學과 여기에서 뻗어나온 새로운 사조에서 찾았다. 그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새로운 사조라는 것이 결국은 公安派나 竟陵派와 같은 晚明小品家들의 혁신적 문학관이었을 것이다. 尾藤二洲는 그같은 문풍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程朱學 위주의 재도지문으로 되돌리고자 애를 썼지만, 그 자신도 이미 明清小品의 문학적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陳繼儒를 狂士라고 비판하면서도 그의 저작물들을 다양하게 섭렵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주된 증거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明治 이후에 『近世名家小品文鈔』와 『近古名家小品文範』 등이 출판되었는데, 이들 책에서는 서로 공박을 했던 古文辭學派나 性靈派, 그리고 절충적 입장을 취한 古注派 등의 작품이 두루 실려 있다. 이는 문체반정으로 소품문이 상당부분 위축되었던 우리와 달리, 18,9세기의 일본 문인들이 전반

적으로 明末清初小品文에 젖어들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어 : 明清小品文, 文體反正, 異學의 禁令, 擬古文派, 公安派, 許筠, 尾藤二洲,
金錫胄

참고문헌

資料

- 『詩集 日本漢詩』 1-20, 汲古書院, 1986.
『韓國文集叢刊』 1-340, 민족문화추진회
『국역해행총재』 I - XI(고전국역총서), 민족문화추진회.
『問槎餘響』, 伊藤維典, 平安書林, 國立中央圖書館本
『日本虞初新志』, 近藤元弘, 國立中央圖書館本
『山陽小品』, 山口謙, 國立中央圖書館本
『近世名家小品文鈔』, 土屋榮, 日本國立公文書館本
『近古名家小品文範』, 龜山雲平, 日本國立公文書館本

著書

- 이진희, 『韓國과 日本文化』, 乙酉文化史, 1982.
李俊杰, 『朝鮮時代 日本과 書籍交流研究』, 弘益齋, 1986.
孫承喆(編著), 『근세한일관계사』,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7
河宇鳳,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研究』, 일지사, 1988.
지은이 三宅英利/웁킨이 손승철, 『근세한일관계사연구』, , 이론과실천, 1991.
金泰俊, 蘇在英, 姜在彦 大谷森繁 編, 『韓日文化交流史』, 민문고, 1991
손승철, 『朝鮮時代 韓日關係史 研究』, 서울:지성의샘, 1994.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이노구치 아즈시 저, 심경호·한예원 역, 『일본한문학사』, 소명출판, 1999.
芳賀登, 『日韓文化交流史研究』, 東京: 雄山閣出版株式會社, 1986.
村井章介, 『東アジア往來』, 朝日新聞社, 1995.
曹淑娟, 『晚明性靈小品研究』(鵝湖學術叢書 6), 文津出版社

論文

-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부산대대학원 박사논문, 1995.
- 김치완, 「중국과 조선의서학 비교 연구」, 부산대대학원, 1996.
- 車基眞, 「星湖學派의 西學 認識과 斥邪論에 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6.
- 백옥경, 「조선 전기 역관의 성격에 대한 일고찰」,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7.
- 尹珠英, 「中國本 西學書의 한국 전래에 관한 文獻的 考察」, 전남대대학원, 1998.
- 辛基秀, 「朝鮮通信使의 새로운 資料·繪馬·繪畫·日記」, 『韓國文化』7-6, 1985.
- 森晉一郎, 「近世後期對馬藩日朝貿易の展開」, 『史學』56-3, 1986
- 孫承喆, 「朝鮮後期實學思想의 對外認識」, 『朝鮮學報』122, 1987.
- 川上陽介, 「『開卷一笑』小考」, 『東京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國文學研究室「國文學論叢」』 제2집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eption of Ming-Ching Literary Skeches by Korean and Japanese Writers in the 18-19th Century

Kim, Sung-Jin

This article examines how Ming-Ching(明清) Literary Skeches are accepted in Korean and Japanese literary groups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For concise comparison, several topical words are discussed such as bibliophiles, bibliomania, purchase route of Chinese books to Korea and Japan as well as Heo Gyun(許筠) and Won Jung(元政), Yi Deuk Mu(李德懋) and Mideungeju(尾藤二洲), literary restoration movement and prohibition of different knowledge. The summary runs as follows.

Whereas most of bibliophiles in Chosun(朝鮮) were Gyeonghwasejok(京華勢族), or aristocratic families who lived in Seoul, people from various classes had their reputation raised as great bibliophiles in Japan. As a result, Ming-Ching Literary Skeches were enjoyed and created mainly in Seoul and Gyeonggi(京畿) area in Chosun, while, Ming-Ching Literary Skeches were accepted in various regions in diverse forms in Japan. Heo Gyun, who accepted Ming-Ching Literary Skeche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purchased thousands of books when he went to Ming with envoys; in case of Japan, Won Jung, known as the first person to accept short essays in the Last Ming Dynasty to Japan, received Mammyungsopum, the late Ming period short essays, through direct companionship with Jin Wonyun(陳元贊) who exiled from China. Chosun's writers went to Yanjing(燕京) and chose what they liked and purchased directly so it could be voluntary acts. On the other hand, in the Japanese case, Chinese merchants were the channels of

distribution so the purchase of the books could reflect social demand at that time and there were possibilities of control of purchasing books and cultural contact by Chinese merchants.

Myeongmal-Cheongcho Munjip(明末清初文集; the late Ming and the early Ching anthology) starting with Gonganpa(公安派) was evidently indicated as the object of restoration in Munchebanjeong(文體反正; literary restoration movement) in Korea. In contrast, the Japanese "Geumnyeong(禁令) of Yihak(異學)"(Prohibition of different knowledge) did not especially mention Ming-Ching Literary Skeches or Pesa Sopum(稗史小品) and made Yangmyeonghak(陽明學; teachings of Wang Yang-ming) as main critical target. Thus, in Chosun, the work by the name "Sopum"(小品) had never been published, whereas, in Japan, some kinds of books were published under the title of "Sopum".

There is no obvious example in Chosun but there are some cases such as *Teamjib*(蛻巖集), *Yukyeoamsicho*(六如菴詩鈔) anthology in Japan that Gonganpa or archaistic works were completely eliminated while compiling. It demonstrated that the authors of the books used in their literary activity both Tang(唐) dynasty and Song(宋) dynasty poetry, and Euigomunpa(擬古文派; archaic literary group) and Gonganpa. The literary works inclined to Gonganpa in *Teamjib* published in the early 18th century were deleted and archaic works were eliminated in *Yukyeoamsicho* published in the late 18th century. In some way that reflected the currents of literary groups at the time. No book was published by the title of Sopum in Korea, but *Geunsemyeongga Sopummuncho*(近世名家小品文鈔) and *Geungo myeongga Sopummunbeom*(近世名家小品文範) were published since the Meiji(明治) era in Japan. The works of different literary groups like Gomunshakpa(古文辭學派), Seongnyeongpa(性靈派) or eclectic Gojupa(古注派) appeared extensively in those books. This implied that Sopummun was shrunk due to literary restoration movement in Korea but writers in Japan absorbed

Sopummun of the late Ming and the early Ching dynasty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To proceed this study *Hanguk Munjib Chonggan*(韓國文集叢刊)by National Culture Promotion Committee for Korean data and *Sijib Ilbon Hansi*(詩集 日本漢詩)by Geubgo Seowon(汲古書院) for Japanese data.

Key Words : Ming-Ching Literary Skeches, MuncheBanjeong (literary restoration movement), Geumnyeong of Yihak(Prohibition of different knowledge), Euigomunpa, Gonganpa, Heo gyun, Mideungyiju, Kim Seokju